



조합원 사전동의 없이 전환배치

사내메일을 통해 일방통보, 조합 생기기 전의 만행 되풀이

4월에 접어들어 나주 공장 나OO의 조합 탈퇴 후, 1공장 소속이었던 STC 설비를 2공장으로 편입됐다.

탈퇴한 나OO에게는 식사, 휴식시간,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등, 특별예우(?)를 다하고 있다.

한편, STC에 박혜정 조합원을 탄압/압박시켜 탈퇴시키기 위해 출입구를 비상구로 만들고 카드키를 통해 들어간다. 벽면에 출입문을 만들어 STC로 들어가도록 해놓았다.

또한, 비조합원 나OO의 신분보호를 위해 박OO, 정OO, 최OO 등이 조합원 위협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있는 모양새다.

STC 설비는 4월 19일자로 생산 1에서 생산 2의 FOR 부서로 편입되어 이OO 파트장이 맡도록 했다.

19일, STC 설비를 현장에 설치하고 오늘날이 있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다했던 김문석 대의원을 비롯한 황중진 부장, 율

동배 박훈조 조합원을 1공장 컨버팅 부서로 사전 동의없이 전환 배치 했다.

사전 면담 등도 거치지 않은 채, 이러한 짓을 자행한 것은 조합 생기기 전의 만행과 다르지 않다.

이 3명은 초창기부터 근무해왔고, 다들 몸이 좋지 않아 부서 이동되었던 사람들이다.

이 모든 것이 조합 깨부수기의 일환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하지만, 나OO은 생산을 공급할 타이밍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업무능력도 미흡하다.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인원이 필요할때는 불법 전환배치한 3명중의 1명이 지원근무를 해야할 수도 있다는 웃기

는 말을 하고 있다. 아직도 생산팀장들이나 공장장은 조합 생기기 전의 만행을 되풀이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만약 노동조합이 없



△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135일째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타 조합과의 연대투쟁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다면 어떻게 되겠는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비조합원은 증거수집... 조합원은 불법이라고?

회사는 지난 4월 21일 대자보를 통해 지적 재산권, 영업비밀보호,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동일하게 적용해야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비조합원들 업무용인 아닌

조합원 증거자료 확보 주력

조합원들에게 도발을 유도하고 사진촬영 및 캠코더 동영상 촬영, 녹취기까지 총동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왜 비조합원들은 촬영이 가능하냐고 반문하면 회사는 승인된 것이라고 말만 하고 있다. 조합원들 압박을 위한 증거수집이 업무적으로 하는 일들인가?

비조합원들이 회사의 기밀 등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어

회사의 승인권자가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조합원들이 승인받았다는 것들로 회사 내의 비밀이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부로 유출이 안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비조합원들이 증거수집 먼저 시작!

조합 역시 증거수집 계속 이어간다!

조합원들이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하는 것이 두려워서 벌이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조합원들에게는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로 촬영등을 제한하면서 승인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조합원 징계를 위한 증거수집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일 뿐이다.

회사의 이 같은 이중적인 자세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조합 차원에서 법적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거짓 선전 못 봐주겠다. 이젠 멈춰라! 회사는 경비를 보호해주려 뵈었나?

회사는 4월19일 마스크공장 게시판에 조합이 거짓 선동을 하고 저질 행동을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 14일 조합원들이 점심식사 배식을 위해 줄을 서있었는데 용역경비원들이 몰려와 새치기를 하려다가 저지된 사건이 있었다.

회사가 올린 게시물에는 이 사건을 놓고 조합이 용역경비들을 도발하기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배식을 늦게 하는가 하면 캠코더 촬영준비까지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용역

경비들이 새치기를 하는 순간 60여명의 조합원들이 6명의 용역경비를 에워싸고 끊임없는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잡하게 밥먹으려고

새치기하는 용역강패들

배식을 위해 줄을 서있는 순서를 무시하고 새치기를 하며 조합원들을 향해 욕설을 한 용역경비들의 행동은 비도덕적이고 추악한 행태였기에 마땅히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무전기는 새치기할 때

쓰라고 있는거냐?

이를 억울하다고 동료

용역강패들을 무전으로 불러모아 조합원들을 위협한 행동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것이다.

회사의 경비라는 사람들이 직원들의 소중한 식사시간을 빼앗으려 했는데 회사는 'OH&ES 보안팀, 부서장, 사무실, 팀 리더 일동 '의 이름으로 경비들을 옹호하고 나서며 조합이 거짓 선동을 한다며 저질로 비난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누구 보고 저질이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밥 빨리 먹으면

회사 빨리 지키는거냐?

회사를 지키라고 뿔아

놓은 경비들을 오히려 회사에서 경비들을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평소보다 점심을 늦게 먹은 것을 억울하다고 회사에 일러바치는 용역경비들이나 조합이 자작극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게시물을 올리는 회사나 비도덕적이고 추악할 뿐만 아니라 창피스럽고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탁하건대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조합을 비난하려 하지 말 것이며 거짓 선전을 멈춰주기를 바라는 바이다.